

격 려 사

신라의 오악 가운데 중악으로 어버이 산이라 일컬어진 팔공산은 극달화상과 원효대사의 수행처였음은 물론 김유신과 태조 왕건, 후백제 견훤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조의 광명이 오랫동안 비추고 있는 대구지역의 모든 불교 역량을 모아 대구불교 총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을 무량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하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불교는 신심 깊기로 유명한
영남불교의 1번지로서 그동안 우리
한국불교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
습니다. 봉우리와 계곡마다 부처님의
자취와 가피가 가득한 팔공산은 대구
시민은 물론 이 땅의 불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약사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문화보다 서로 배척하고 시기하는 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종교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구광역시와 경북 일원의 사부대중이 그 역량을 결집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불교총연합회가 각 사암과 불교단체의 화합과 결속을 바탕으로 영남불교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대승적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불교발전과 불교역사문화 창달, 콘텐츠 개발 보급 등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사업과 활동이 원활히 전개되어 대구불교가 영남불교와 한국불교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보다 공고히 하고 지역 사회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족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의 활동은 앞으로 다른 지역 불교계가 실행해야할 모든 사업의 모범이고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구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의 틀을 제시하시고 총연합회장의 중책을 맡으신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 연합회에 힘을 모아주신 대구지역 12개 종단과 신행단체, 포교단체장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이와 같은 지중한
시절인연과 소중한 불법인연을 담고
있음을 자각하시고 지역불교발전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모아 산적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이 땅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연합조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2월 01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